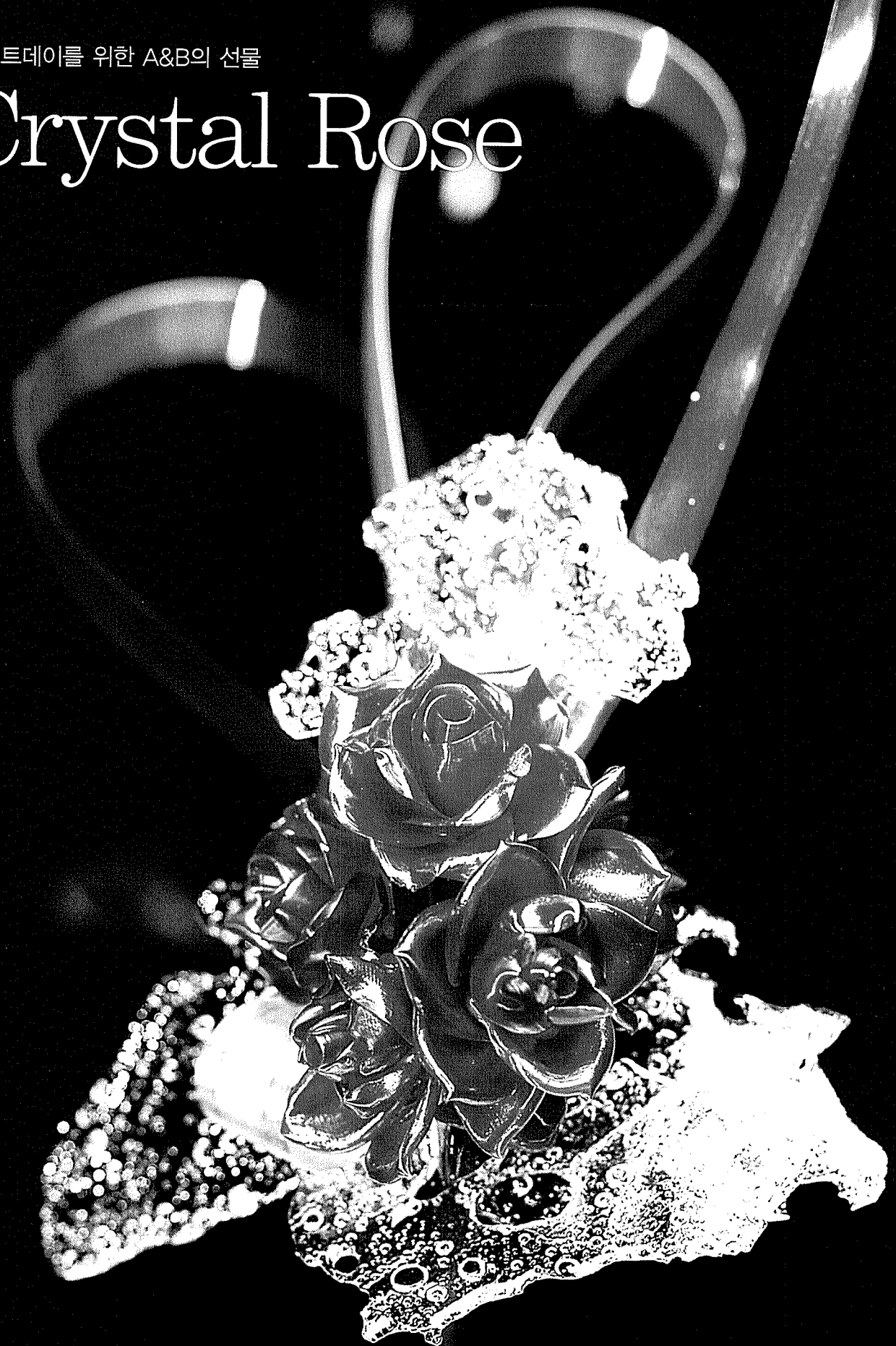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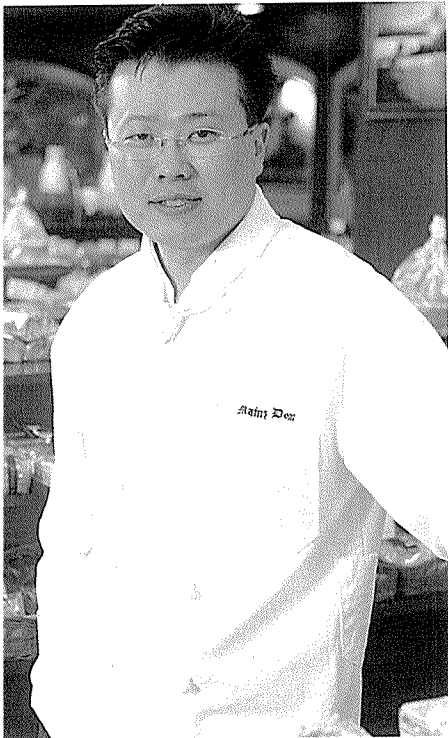
화이트데이를 위한 A&B의 선물

Crystal Rose



마인츠돔과자점 정영택 실장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제과인생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정영택 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신라호텔 제과부'라는 직함이었다. 그러던 그가 10여 년을 몸담았던 직장을 과감히 떠나 '마인츠돔과자점'에서 새롭게 등지를 틀었다. 남들이 흠모하는 호텔 제과부를 떠나 자영제과점 매장일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기술인이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매장을 갖는 것이 소원이지요. 이제는 내공을 쌓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자기 점포를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에게 고객을 직접 대하는 자영제과점 근무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코스’였다. 2003 월드페이스트리컵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어려움 또한 대기업 직장생활을 접게 한 또다른 이유다.

정영택 실장은 마인츠돔과자점에서 일하면서 호텔에 있을 때는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다고. 인지도에 의해 제품을 파는 호텔 제과부와 달리 고객들을 끌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깊이 연구하는 자영제과점의 영업 마인드는 그가 전혀 몰랐던 사실인 만큼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다.

“고객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공장에서 제품만 만들어서 파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기술인들도 적극적인 세일즈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요즘 7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월드페이스트리팀챔피언십대회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낸다. 매장일 하라, 대회 준비하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텐데도 “꾸준한 대회 출전 역시 자기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며 밝은 미소를 보여준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새삼 실감난다. 글·허윤정 기자 | 사진·정영주

마산 용마고 석동훈 군

8년째 이어진 파배기 사랑

파배기빵을 만들어 8년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마산 용마고에 재학 중인 석동훈 군이 바로 그 주인공. 석동훈 군은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파배기빵, 단팥빵 등을 만들어 독거노인이나 경로원 등에 전달하고 있다.

석동훈 군이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어린 나이에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곁에서 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아버지 덕분이었다. 아버지 석민호 씨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해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줄곧 어려운 이웃을 위해 빵을 만들었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느새 파배기빵 만드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우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석동훈 군의 선행에 동참한 친구들과 후배들이 봉사대를 발족시켰고, 3학년 때는 ‘사랑의 파배기’라는 행사를 마련해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 지속되면 봉사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일이 때때로 힘들었다.

“같이 봉사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마음을 떠올리라고 충고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어 잘 이겨낼 수 있었죠.”

석동훈 군에게 아버지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제과점을 처분 할 때도 이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빵을 만들 수 있도록 공장은 남겨주신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있어 자신이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앞으로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석동훈 군. 자신이 만든 빵을 드시며 연신 맛있다고 고마워하는 할머니들의 미소에서 가슴이 훈훈한 정과 행복을 얻는다. **B** 글·김영주 기자

